

古典名句

신정근

성균관대 유교문화연구소장

과이불개 過而不改, 시위과의 是謂過矣

사람의 특성을 규정하는 말이 많다. “사람은 이성적 동물이다”라는 말은 사람의 이중성을 잘 보여준다. 사람은 동물성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이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압축적으로 나타내기 때문이다. 강의실 안이 아니라 현실에서 사람은 이성적 동물이라기보다는 습관에 따라 움직이고 실수를 되풀이한다.

오늘날 ‘내’가 한 실수만을 쫓아 봐도 한두 가지가 아니다. 늦잠을 잔 뒤 급히 나오느라 챙길 것을 놓치기도 하고, 바쁘니까 교통신호의 정지선을 어기기도 하고, 나에게 인사를 건네는 사람을 그냥 지나치기도 하고, 회의에서 더 합리적인 상대의 의견을 잘못됐다고 우기기도 하고, 오늘 끝내기로 한 일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기도 한다.

우리는 공자를 성현으로 안다. 하지만 역사적인 공자는 허점투성이를 지닌 보통 사람이었다. 그도 하지 말아야지 하는 실수를 되풀이했다. 그는 실수를 할 때마다 “사람이니까 실수를 할 수 있지. 하지만 실수를 한 이상 솔직하게 시인해야지. 실수를 인정하고 원인을 따져서 다음에 똑같은 실수를 하지 말아야지.”라고 다짐했다.

그 결과 그는 실수와 관련해서 새겨볼 만한 말을 남겼다. “사람은 실수를 할 수 있다. 하지만 그 실수를 고쳐야지 하면서 실제로 고치지 않으려고 버티지 마라.” “**잘못을 해놓고 그것을 시인하고 고치지 않으면 그것이 잘못이다.**”(過而不改, 是謂過矣)

공자는 사람이 잘못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다만 그는 잘못을 해놓고 잘못이 아니라고 변명하거나 잘못을 바로잡으려고 노력하지 않는 것을 달가워하지 않았다. 그렇게 되면 최초의 잘못이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두 번 세 번의 잘못을 낳게 된다고 보았다.

제자 안연은 공자가 실수를 줄이려고 노력하는 것을 보고 “같은 잘못을 두 번 되풀이 하지 말라”라는 불이과(不貳過)라고 말했다. 안연은 잘못을 다시는 안 하겠다고 굳게 다짐하지 않으면 금방 잘못을 되풀이하는 사람의 진면목을 멋지게 포착하고 있다. 언론이 특종 경쟁을 벌이느라 사실 확인을 게을리 하여 오보를 낸다면, 바로 인정하고 바로잡으면 그만이다. 잘못된 것을 잘못하지 않았다고 버티면, 진실을 보도한다는 언론의 책무는 둘째 치고 언론에 대한 신뢰마저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에 당도한 마음을 풀기 위해 ‘바다’를 택하는 것도 스트레스 해소의 한 방법이 될 것이다. 아무튼 이 두 곡을 담은 음반 재킷은 영감을 주었던 그림을 신는 경우가 많다.

● 희망과 신비 그리고 사랑의 바다

우리가 바다를 찾는 이유는 뭐니 뭐니 해도 그 존재와 대면한 뒤, 희망을 품기 위해서다. 바다는 우리의 막힌 가슴을 뽕뽕 열어주기 때문이다. 이럴 때 어울리는 곡은 영국의 본 윌리엄스(1872~1958)가 1909년에 작곡한 교향곡 1번 ‘바다의 교향곡’이다. 미국의 국민시인 윌트 휘트먼(1819~1892)의 시를 오케스트라와 함께 하는 합창단의 가사로 차용한 이 곡 속의 바다는 ‘죽음을 극복한 인간 승리’, ‘미지의 영적인 세계로의 출범’ 등을 상징한다. 바다의 신비로움을 담은 2악장도 압권이다.

영국의 구스타브 홀스트(1874~1934)는 ‘행성’ 모음곡이라는 교향곡으로 우리에게 친숙하다. 1920년에 초연된 곡으로, 홀스트는 오케스트라 특유의 뽕뽕한 사운드 효과를 기가 막히게 구사한다. 총 7개 악장으로 되어 있는데, 그 중 마지막 악장에는 ‘해왕성(Neptune)’이라는 제목이 붙어 있다. 넵툰(Neptune)은 로마 신화에서 바다의 신 넵투누스(Neptunus)의 이름을 딴 것. 그래서 바다(海)의 왕(王)을 그대로 해석해서 해왕성(海王星)이라 부르는 것이다. 이 악장에서 오케스트라와 함께 하는 여성합창은 바다 속을 누비는 신비한 인어의 모습을 표현한다.

바다와 잇닿은 항구에 발판을 둔 음악들은 다른 음악들보다 감정의 파고(波高)가 더욱 높은 것 같다. 특히 지중해로 들어서면 바다는 찬란한 태양과 만나 또 다른 생명력을 얻는다. 햇빛 찬란한 이탈리아 나폴리의 민요들. 그 중 ‘산타 루치아’처럼 잔잔한 바다 위에 그려진 사랑 노래들은 늘 한여름의 추억을 장식한다. 올 여름, 사랑하는 이와 같이 들어보자. 바다를 눈앞에 두고.

